



황영구  
문화고문

## 축산업 관련 시험연구기관의 정통성

**축** 산업이라함은 자연과 인간 생존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성이 높은 가축을 선정하여 자연과 인류와 가축간의 자연섭리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인간 본연의 생존을 위한 활동인 것이다.

가축을 통하여 자연과 접촉하는 인간의 체험은 생명과 자연에 대한 외경의 신념을 배양하게 하며 자연환경과 인간성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농본주의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축산업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산업적인 위치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

전적인 연대관을 공고히 하는 기술의 혁신으로 인류에게 공헌하며 나라에 보답할 수 있는 축산업 자체의 자세를 확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과의 절대성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농민과 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을 장구한 세월 땀흘려 일하였어도 빈곤한 농민이었고 생활문화에서는 항시 뒤떨어진 봉건적인 농촌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한 국민의 감정은 때로는 과장된 점도 있었으나 허구만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농민의 대명사격인

백성이라는 말도 군주라는 말의 대칭어로서 농경시대부터 본래는 경멸하는 의미는 아니었으나 부유하지 못한 또한 문명인이 아니라는 억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기도 하였지만 많은 농민들은 아직도 자연속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위하며 농촌을 지키고 있는 국가의 지주인 것이다.

경험에 의한 중노동을 인내하여야 하였던 과거의 관행농법으로부터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실무기술을 존중하여야 하는 과학농법으로의 전환에는 우리나라 농촌 사회구조의 특징인 씨족중심의 집단부락형성, 농

토의 소면적 분산소유의 전통성 및 경종농업생산의 계절성 등이 급변하는 고도산업사회의 경제 질서 속에서 특히 주곡농업 농가들의 소득 제한을 제도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때 주곡은 국가의 식량 자급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정책적인 정부의 지원이 강조 되어야 할 것이나 제약된 국토조건 하에서 농토면적의 확대가 지세적인 자연환경과 사회적인문제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된 순수한 농업소득과 다른 산업과의 소득격차를 농외에서 보완 하여야 하는 난제를 가지고 있다.

축산업은 가축의 생산능력을 기술과 제도개선으로 높일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다. 이러한 차이는 동물과 식물의 기본생리에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래 농업의 방향은 구라파의 화란과 같이 가능한 생산성을 조화있게 높일수 있는 선진국형, 즉 축산업의 비중을 높여가는 전체농업구조개발의 정책적인 전환과 국민식생활 유형 변화에 따르는 동물성 단백질 식품의 수요충족을 위한 축산업의 획기적인 진흥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축산업의 초석이요, 대상인 가축의 개량증식을 위한 새로운 학문과 기술의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인 과업달성의 선결과제는 현재 농촌진흥청에 예속되어 있는 축산업관련 시험연구 기관을 분리하여 독립기구로 통합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학문과 기술의 기초작업인 시험연구사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서 얻어지는 기술혁신의 성과를 양측현

**새로운 학문과 기술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인 과업달성의 선결과제는 현재 농촌진흥청에 예속되어 있는 축산업관련 시험연구 기관을 분리하여 독립기구로 통합개편되어야 한다는 것**

장에서 축산농가들의 소득으로 직결되게하여 자가노동의 노력의 평가와 첨단 과학정보의 활용 및 시설과 작업의 기계화가 촉진되면서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가축의 생산성 향상외에도 축산물의 유통구조와 품질을 중요시 하는 수요동향에 의한 가격정책의 합리적인 개선 등 국내와 국제적으로 강

화 해결하여야할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기는 하나 국토의 일정한 비율, 22%내외는 숙명적으로 영구히 농토로서 축산농가를 위시한 농민들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과 농토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은 직접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공급되는 식량이라는 점등 국가의 부흥과 국민의 존망과 직결되어 있는 역사적인 과거는 현실인 동시에 미래라는 것을 심찰하여야 한다.

적어도 장래에는 축산업이 고도로 발달된 기술기반 위에서 중요산업으로서 그 위치가 공고히 정착되어야 한다.

선·후진국 공히 산업별 시험연구사업은 대체로 국비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온 국민의 자격으로 또는 축산업에 종사 하여온 직능인으로서 축산업 관련 시험연구기관의 정통성을 회복하여 그 위상을 통상적인 세계수준으로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현재까지의 실태를 살피보고자 한다.

국가나 민족의 정통성은 과거의 소중한 역사요, 장래에 창조하고 개발유지 하여야하는 중요하고 그리고 영원한 과제이기도 하다.

일제의 36년간의 식민통치가

우리의 모든 정통성을 말살하고 남의 나라, 남의 민족, 즉 한국과 한민족에 대한 주인 행세의 총독독재정치를 강행하였던 당시 우리들의 참상을 망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이유는 타율에 의하여 산업의 결손을 초래하게 하고 그 결과는 민족의 빈곤을 강요한다는 독재자들의 속성이 간단없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이다.

당시 일제정략가들은 식민통치의 잔악한 방법으로는 총독치하의 도단위행정책임자인 도지사 중 도민의 성격이 지역적인 영향으로 그 성품이 온순한 강원도와 같은 2~3개도의 지사를 나라를 빼앗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민족반역자인 일제에 아부하는 사람을 선별임용하여 일제 침략의 대리자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조물주의 섭리는 정통성의 타율을 허용하지 않았다. 드디어 일본은 패망하였고 우리는 우리의 힘의 자율에 의한 완전한 국가나 민족의 정통성의 쟁취는 아니었지만 양분된 국가와 민족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산업을 재건하여 선진국으로 갈수 있는 길을 개척하였고 세계 평화의 제전인 제 24회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민족의 저력과 국가의 위업을 세계의 모

든 인류세계에 과시하게 되었다.

**국** 가나 민족의 정통성이 중요한 것과 같이 그에 상응하는 축산업 관련시험 기관과 그 학문의 정통성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1949년 1월 6일 대통령령 제45호로 농사개량원을 중앙농업기술원

**중앙농사기술원과 대등한 중앙축산기술원이 1952년 5월 10일 대통령령 제 640호에 의하여 중앙농업기술원에서 분리되어 농림부 직속으로 독립신설**

으로 개편한 후 양축농가들의 숙원이던 축산시험 연구기관의 정통을 계승하여야 할 사명과 민주주의 분권과 분업의 원리를 제창하였던 당시의 축산인들의 집결된 힘으로 중앙농사기술원과 대등한 중앙축산기술원이 1952년 5월 10일 대통령령 제 640호에 의하여 중앙농업기술원에서 분리되어 농림부 직속으로 독립신설 되었다. 그러나 양

축농가들의 희망과 축산관계 인사들의 포부에 역행하여 중앙축산기술원 외의 가축방역의 많은 업적과 공헌을 하여오던 가축위생연구소의 독립성과 정통성을 단절하였는데 그 과정은 이러하다.

1957년 2월 12일 법률 제435호 농사교도법과 동년 5월 28일 대통령령 제1247호에 의한 농사원직제공포와 함께 농사원이 개원된 후 1958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640호에 의하여 중앙축산기술원은 독립 발전한지 5년 7개월만에 다시 주국을 주로하는 경종농업과 관계되는 농학자들이 지배하여야 하는 농사원에 주관도 원칙도 명분도 없이 흡수를 당하였고, 중앙축산기술원을 축산시험장으로 개편하면서 동시에 가축 위생연구소도 그 학문의 특수성이 경종 농업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으며 농사원과 현재의 농촌진흥청은 법적으로 가축 방역업무에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위생연구소를 농림부 직속에 농사원 산하로 편입하여 축산학과 가축 위생학의 전문성과 정통성은 타율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후 동년 10월 2일 법률 제472호로 농사교도법을 농사 연구교도법으로 개정하고 각령 제183호로

농사원직제를 공포하면서 기상 천의하게도 축산과 가축위생 분야의 전통을 무시하고 축산시험장은 축산부로, 가축위생연구소를 가축위생부로 개편하면서 업무의 명맥만을 유지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기관을 폐쇄하고 장장과 소장의 직급을 공무원 2급에서 3급으로, 하강조정하여 시험연구 기관의 중요성과 성격을 격하하였고 여기에 근무하는 학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떨어뜨리게 하는 국내는 물론이요, 국제적으로도 그 예가 없는 불행한 특례를 남기었다. 그후 6개월도 못되어서 1962년 3월 21일 법률 제1039호로 농촌진흥청법이 제정되고 농촌진흥청 직제가 1962년 3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발족하면서 축산부가 축산시험장으로 가축위생부가 가축위생연구소로 그 명칭만 환원되었다. 1962년 12월 16일 농촌진흥청 직제 개정에 따라 축산시험장의 대관령지장을 고령지시험장으로 제주지장을 제주시험장으로 분리하여 지역종합시험장으로 격상 발족하였으나 현재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상태이다.

1958년 초에 농사원 소속으로 편입된 후 30여년간 축산시험장과 가축위생연구소에 대한 행정관리면의 과오의 개략을 살펴보

면 먼저 축산분야에 한하여 지장장의 직급을 1급식 격하를 하였던 실적이 있고 일제때부터 축산의 중앙의 소속기관으로 운영하여 오던 경주지장을 폐쇄하여 민간에 불하하였으며 야생목초인 "섬바디"를 개량시험연구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료작물로 선정하여 국비를 낭비한 사실과 식물육종학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도덕성 그리고 가축위생연구

**축산업은 주로 동물성 단백질 식품과 털과 모피의 의류등 생활원료를 생산하는 동물을 상대로 자연의 지배하에서 생물의 생산기능을 조장 활성화**

소에 근무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국가시험제도에 의하여 면허제를 채택하고 있는 수의사의 고유직무인 가축위생연구소 소장직에 타분야를 전공한 학자를 보직하여 학문의 발전과 인화창달을 저해한 사실과 제5공화국의 공직자 해직시 감자종자 바이러스가 카토릭농민회에 의하여 문제가 되었을때 농학자인 실무자는 그 책임을 면제하고

축산학자인 장장을 해직한 학자와 학문에 대한 윤리성의 편견등을 성찰할 때 농촌진흥청은 후배 축산인이나 가축위생학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해명하고 학문의 전통을 어떻게 계승할 것이며 명예로운 학자라고 후배학자들 누가 얼마나 존경할 것인지를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일제침략사와 대비하여 불매 정치가가 자기 정통성의 직무를 자학하는 학자를 대리로 활용하여 학문의 정통성을 타율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불신평조의 조장은 중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축산업은 주로 동물성 단백질 식품과 털과 모피의 의류등 생활원료를 생산하는 동물을 상대로 자연의 지배하에서 생물의 생산기능을 조장 활성화하여 그 생산성을 계속 제고하여야 할 산업임으로 세계각국들은 경쟁적으로 학문의 발전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사업을 정부는 민주적으로 강화하고 학자들은 전문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정진하여 창조적인 국제수준의 업적을 올리고자 상대간의 독립적 위치를 존중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적 관점에서 판단하여불매 축산업관련시험연구기관은 국립중추원과 함께 농촌

진흥청으로부터 분리통합하여 축산업 발달의 초석이 되고 기초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여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될 수 있는 기구와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신규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축산업의 시험연구와 종축생산기관이 설립된다면 현재의 농촌진흥청과 같이 옥상옥으로 기관의 행정관리 책임자자격인 사람을 우대하는 조직이 아니고 실험실이나 포장에서 연구하는 학자를 예우하는 기관이 되도록 외국의 예를 참고로 증거를 모아 편제의 능률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축산업 시험 연구기관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본인 자신도 상당한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현재의 시험연구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나 타율에 의하여 곤욕을 치르고 있는 연구직 학자들에게 격려나 위로가 되기 보다는 과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중앙축산기술원 독립후 5년7개월간의 그 시기의 우리 정부의 예산규모나 국가의 경제상태는 현재에 비하여 빈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원과 4개지원을 신설하여 축사, 실험실 등 시설의 완비, 소요용지의 구입확보, 원종축의 입식 및 기술자의 배치

등 중앙농업기술원 소속 당시에 비교하면 축사의 면적이나 종축의 두수면에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발전을 이루었었다.

우리가 반성하여야 할일은 그와같이 발전하던 중앙축산기술원을 농사원으로 흡수하여 30여년간 정부예산증감대비 얼마나 그에 상응하는 축산시험장의 투자와 발전을 가져 왔느냐 하는

**우리가 반성하여야 할일은 중앙축산기술원을 농사원으로 흡수하여 30여년간 정부예산증감대비 얼마나 그에 상응하는 축산시험장의 투자와 발전을 가져 왔느냐 하는 문제다**

문제를 독립과 흡수 되었던 두기간을 대비하여 그 실적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분리 독립후의 발전실적을 보면 자명하다.

끝으로, 양축현장에서 불철주야로 노고를 하면서 축산업진흥에 헌신하고 있는 양축농가들도 일어서서 양축업에 중요한

부문에 하나인 실무기술 개발의 원천인 통합된 축산업시험연구기관 설립에 목소리를 높이고 참여 하여야 한다.

특히 낙농가들은 고도의 기술과 최신 첨단과학정보가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우유소비 홍보 포어

**완전한 영양**  
**우유를 마시자**